

하루를 시작하며



김 문 정  
시인

자, 이제 내 발걸음에 대한 소문과 걱정은 폐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와 잠시 동선이 겹친 시간으로부터 교박 보름이 지났습다. 처음 맞닥뜨려서는 문득 영화 '부산행'이 떠올랐습니다. 사투를 벌이다 결국 좀비가 되어가던 주인공이 끝내 자멸하죠. 너무 비장한가요. 우선은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없고 더 이상의 전파를 막아야하는 것이니까요. 아침에는 다시 도청 발 안전 안내문자가 모닝콜로 오네요. 네 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한답니다. 당신의 지난 며칠간의 행적을 꼼꼼

## 자가격리를 대필하다

히 들여다봅니다. 분 단위로 일일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겠는 걸요. 감염 여부가 두려운 누군가가 또 걱정이군요. 곳곳에 있는 CCTV와 카드지출내역과 통화기록 등에 찍힌 당신의 흔적. 유쾌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강그리 드러내야하는 때입니다. 공유할 일없던 당신의 발걸음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되짚어보게 되는 내손을 거치거나 내 발길 닿던 곳. 미처 깨닫지 못한, 모르는 인연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창할 것 없이 나쁘지만 않아도 좋겠군요.

세상 '다시 배우기'도 했습니다. 기침예절이며 마스크쓰기와 손 씻기까지. 나이 없이 이렇게 무심하고 서툴렀다니요. 겸연쩍지만 어딘가이처럼 새롭게 배우고 천진하게 따라야겠네요. 잠시 세상 쪽으로 난 문을 닫고 침잠하는 시간. 이침에 오랜 것들도

꺼내보고 묵은 먼지도 털어내고 살뜰하게 '냉장고 파먹기'도 했습니다. 밖을 나서더라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생존방법입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아남기죠.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막상은 한절기감기 정도라는데 숫자와 소문이 흥흥해서 더 무섭습니다. 어찌 보면 막연한 공포나 혐오를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제일 나쁜 바이러스예요. 세상 속에 함께 라는 것을 잊은 이들. 철써서니 없는 일부 크리에이터,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커뮤니티, 심지어 마스크 사재기에도 낙인과 혐오로 만들어진 우스갯소리라니요.

현장은 너무나 처절하고 먹먹한데 말입니다. 발길이 뚝 끊긴 상가와 거리, 전국소방구급대의 행렬, 잠복근무, 의료봉사단. 방호복을 입은 채 까무룩 졸고 있는 분도 보았습니다. 간헐있는 갑갑함이 현장의 고단함에 비길까요. 고난을 헤쳐 나가는 동력

에 힘을 보태는 연대와 배려가 눈물겹습니다. 손잡거나 안을 수 없지만 어깨를 단단히 걸고 뛰는 마음들이 곳곳에서 피어납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꽃소식만으론 이미 봄이에요. 아 작은 모두가 힘들지만 곧 좋아지겠지요. 혹독했던 만큼 사회안전망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질 겁니다. 시사하고 자루했던 일상이, 반복되는 매일의 지난함이 '소확행'이었음을 다시 느낍니다. 며칠 꽃샘바람이 매섭다는데 홀로 따뜻한 것 같아 바깥을 향한 그리움도 엄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 한 소절. 단조로운 멜로디와 짧은 가사가 일상을 덮아줍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제발, 무탈하시기를.

열린마당

## 탄소포인트제 참여로 삶의 질 높이자



김 은 심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지난 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9.6℃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는 기상청 분석이 나왔다. 현재진행형인 '지구 온난화'가 피부에까지 와 닿았다는 지적이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사람은 어떻게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지속돼 지구온도 상승폭이 커지면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지역이 물에 잠기고, 심각한 식량 위기, 기상 이변 등으로 사람이 더 이상 살기 힘든 환경이 된다고 말한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지구는 평소 일정량의 온실가스로 평균 15℃

의 평균온도를 유지하는데, 온실가스의 양을 필요 이상으로 갖게 되면 지구 평균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석유, 석탄, 가스 등이 온난화의 원인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2009년부터 시행된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말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년간 사용량을 비교해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냉·난방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가전제품 플러그는 뽑아두며,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탄소포인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올해에는 시민 모두가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해 우리가 살아가는 소중한 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 고경실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관심

### 이번주 중 입장 표명 예정

○…미래통합당 경선후보에서 '컷오프'된 고경실 예비후보를 향해 지지자들이 무소속 출마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고 예비후보의 입장 표명에 관심.

고 예비후보 지지자 1500여명은 10일 고 예비후보의 공천 경쟁 대상자 탈락에 항의하며 미래통합당 도당에 탈당계를 제출. 향후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탈당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운데 고 예비후보는 이번주 중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

오은지기자

### 검정고시 5월로 연기 가능성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4월11일 치러질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초·중·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도 연기 가능성.

교육부는 10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검정고시 담당 사무관

과 장학사 등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검정고시를 5월로 미루는 방안을 협의.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한달가량 연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 김지은기자

### 제주시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제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외식업체 등 위생 단체가 참여하는 자율방역시스템을 구축, 방역소독을 강화할 방침.

시는 우선 자체예산을 활용해 인체무해 소독약 200개와 방역복, 중전식분무기 등을 구입 한국 외식업체제주지사 등 5개 위생단체에 배부해 단체별로 방역소독을 전개.

시 관계자는 "제주보건소 등에서 추가로 방역약품 6000여개를 지원받아 숙박, 이·미용업 등을 포함 전 위생단체에 배부 자체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사설

## 감염원 막는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하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자가 줄어든 탓입니다. 문제는 신천지를 넘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요양원과 노래방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 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에 참여해 코로나를 차단하자"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2주가 중대한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확산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대책은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국민 모두 방역주체로서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분명 가파르게 늘었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발생한 확진자가 지난 8일 272명에 이어 9일에는 165명으로 사흘 연속 줄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내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심해선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인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 다크 투어리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제주지역 다크 투어리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아픈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 온 도민 입장에선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만구 의원에 의해 대안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를 지정·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 목적은 제주지역의 역사적 사실이나 장소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하고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제주지역은 다크 투어리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 자원들, 일제 강점기나 4·3의 현장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대정읍 지역만도 알뜨르비행장 격납고를 비롯해 첫알오름학살터, 백

조일손지묘, 일제 해안진지동굴 등 여러 곳입니다.

다크 투어리즘은 제주의 암울했던 역사들을 미래를 위해 제대로 보여주고,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제주형 다크 투어리즘은 기존 휴양형 관광, 생태관광에 이어 새로운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는 일반 관광과는 형태와 분위기 면에서 사뭇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하나의 사건·사실과 다수의 장소를 묶는 알찬 프로그램 구성, 해설사(안내원) 교육, 상업적 접근 자체 등 준비돼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민들에게 아픈 기억의 장소지만 꼭 기억해야 할 '네거티브 유산'들, 이제 역사교훈의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첫 단추'가 알차게 끼워지길 기대합니다.

## 부 고

광산김공 영식(대동공업(주) 제주대리점 대동기계·남성상사 대표(향년 86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8일 03시경에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 2020년 3월 11일(수요일)  
▶ 발인일시 : 2020년 3월 12일(목요일) 오전 6시  
▶ 발인장소 : 제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 장 지 : 제주시 용강동 가족묘지 선영

|     |        |     |     |
|-----|--------|-----|-----|
| 부인  | 김경순    | 손자  | 김민규 |
| 아들  | 김수환    | 손녀  | 김지석 |
|     | 김수태    |     | 김민형 |
|     | 김태형    |     | 김민주 |
|     | 김태성    |     | 김민영 |
| 딸   | 김미현    | 외손자 | 이상철 |
|     | 김미정    |     | 고지완 |
| 며느리 | 김유랑    | 외손녀 | 고지연 |
|     | 김현실    |     | 김지환 |
| 사위  | 이웅진(敬) | 손서  | 김동환 |
|     | 고종호    |     |     |

※ 연락처 : 김수용 010-2698-6620  
김수환 010-2699-6620  
김태형 010-7269-4226  
김미현 010-3007-8624  
김유랑 010-2698-4129  
김현실 010-9609-9407

## 부 고

송창윤(사랑숨결교회장로) 어머니 안덕교회권사 차광록(향년 94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1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 2020년 3월 12일(목요일)  
▶ 발인일시 : 2020년 3월 13일(금요일) 오전 8시  
▶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2빈소  
▶ 장 지 : 대정읍 무릉리 선영

|     |     |     |     |
|-----|-----|-----|-----|
| 아들  | 송창윤 | 며느리 | 강부정 |
|     | 창길  |     | 양문희 |
| 딸   | 송창영 | 사위  | 박영부 |
|     | 영미  |     | 류태우 |
| 손자  | 송성필 | 손부  | 정민선 |
|     | 성욱  |     | 장원복 |
| 손녀  | 송성린 | 손서  | 유익재 |
|     | 성실  |     | 박지박 |
| 외손자 | 박박요 | 외손부 | 최지혜 |
|     | 류명환 |     | 조은경 |
| 외손녀 | 류한솔 |     |     |

※ 연락처 : 송창윤 010-2375-6773  
송창길 010-9621-5622  
송창수 010-5165-1867  
박영부 010-3694-2434  
류태우 010-7385-0153

##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 서귀포시정 소식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안내

- 시범사업 시작일 : 2020. 3. 2(월)~
- 내용 : 재활용 도움센터(16개소)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 이용
  - ※ 투명 페트병 분리로 재활용량 2.9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국내 재활용원료 확보
- 달라진 내용 : 플라스틱 일괄배출→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 분리배출 방법 :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 싹 비우기→라벨 제거하기→찌르러트린 후 뚜껑 닫기→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버리기
  - ※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해주세요.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760-3202

###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3. 2 ~ 3. 31
- 연납 할인율 : 자동차세 연납액의 4~12월 기간의 10%(약 7.5%)할인
- 신청방법
  - 서귀포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탁(www.wetax.go.kr) 접속→인터넷신고납부
  - ARS(1899-0341)
- 납부방법
  - 위탁스 및 인터넷납부
  - 신용카드로 납부 :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납부가능
  - 전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서 납부서로 직접 납부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 ☎ 760-2331~2335, 각 읍·면·동 주민센터

###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 알림

- 신청기간 : (2차) 2020. 3. 2 ~ 11. 15(잔여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전지역
  - 동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중앙동·정방동·전지동(남성마을 제외) 제외한 주거지역
- 사업기간 : 2020. 1 ~ 11. 15 (대상자 추가 선정기한)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대수선 규모 이상)
- 주택규모 : 연면적 150㎡ 이하
- 용자한도 :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원 한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접수처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건축과 ☎ 760-3001, 3224)